Norwegian Dances, Op. 35

- □□

정보

Edvard Grieg: Norwegian Dances, Op. 35
작곡가: Edvard Grieg (1843–1907)
작품명: Norwegian Dances, Op. 35
장르: 피아노 네 손을 위한 네 곡의 춤곡 모음
작곡 시기: 1880년 구상, 1881년 완성
초판: 1881년 11월, C. F. Peters, Leipzig
IMSLP: https://imslp.org/wiki/4_Norwegian_Dances%2C_Op.35_(Grieg,_Edvard)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Norwegian_Dances_(Grieg)

Edvard Grieg의 Norwegian Dances, Op. 35는 원래 피아노 네 손을 위해 쓴 네 곡의 춤곡 모음이다. 오늘날 오케스트라 연주로도 자주 만나는 판본은 그리그가 직접 관현악화한 것이 아니라 Hans Sitt와 Robert Henriques 등의 편곡에서 비롯되었다 . 네 곡은 서로 다른 조성과 빠르기를 사용하며, 민요 선율의 간결한
반복을 피아노의 네 손과 관현악의 색채로 확장한다.

개요
그리그는 1880년 1월 코펜하겐에서 이 모음의 구상을 시작했고, 1881년 여름 노르웨이 Lofthus에서 곡을 완성했다. C. F. Peters는 1881년 11월 Leipzig에서 피아노 네 손용 초판을 냈고, 그리그가 직접 만든 두 손용 편곡은 1887년에 별도로 출판되었다 . 따라서 네 손 원판과 오늘날 독주 피아노로도 연주되는 두 손 판본은 같은 음악을 바탕으로 하지만 서로 다른 악보다.

네 곡의 선율은 Ludvig Mathias Lindeman이 1853년부터 1867년까지 펴낸 노르웨이 민요 모음집과 연결된다. 선율의 원형과 출처를 둘러싼 명칭에는 여러 설명이 있지만, 그리그는 민요의 짧은 동기와 춤 리듬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피아노의 화음과 반복 구조 안에서 새롭게 배열했다.

출판 정보와 자료

초판은 6507 이라는 판번호로 출판된 피아노 네 손용 악보이며, Bergen Offentlige Bibliotek에는 그리그의 자필과 초판에 손으로 보충한 자료가 남아 있다. 현대 연주자는 원판의 네 손 버전과 Hans Sitt의 관현악판을 구분해야 한다. Sitt판은 현재도 Kalmus와 Peters 계열의 재판으로 유통되며, 원작의 편성이나 초연을 그리그

자신의 관현악 작품으로 바꾸어 부를 수는 없다.

소요 시간

네 곡을 모두 연주하면 원판과 관현악판 모두 약 18분이 걸린다. Petri Sakari가 지휘한 Iceland Symphony Orchestra의 Sitt판 녹음은 18분 05초이며, 네 곡은 각각 약 6분, 2분 30초, 3분 30초, 6분으로 나뉜다. 반복과 빠르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몇 초에서 1분가량 차이가 난다.

편성

원작은 두 연주자가 한 피아노에서 함께 연주하는 네 손 편성이다. Hans Sitt의 관현악판은 다음과 같은
대규모 편성을 사용한다.

목관: 플루트 2(피콜로 겸용),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와 타악기 2
기타: 하프
현악: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이 편성은 네 손 피아노의 밀도와 화음 진행을 여러 악기군으로 나누어 들려준다. 관현악판을 연주할 때에는 편곡자가 음색을 새로 배치했다는 점과 그리그의 네 손 원판을 구분해야 한다.

곡별 구성

I. Allegro marcato (D minor)

첫 곡은 행진곡과 춤곡의 박을 결합한 빠른 곡이다. 짧은 선율이 강한 악센트와 함께 반복되고, 중간에는 보다 길게 이어지는 서정적 부분이 놓인다. 처음과 끝의 박력 사이에 이 중앙부가 들어가면서 , 단순한 행진곡보다
넓은 호흡을 가진 세 부분 구조가 형성된다.

II. Allegretto tranquillo e grazioso (A major)

두 번째 곡은 제목처럼 조용하고 우아한 성격을 지닌다. 첫 곡보다 느린 움직임 속에서 짧은 선율과 반주형이
번갈아 나타나며, 네 손 피아노의 높은 음역과 중간 음역이 가볍게 포개진다. 관현악판에서는 목관과 현악이 이 대화를 나누어 맡아, 같은 선율을 더 넓은 음색으로 펼친다.

III. Allegro moderato alla Marcia (G major)

세 번째 곡은 행진곡 풍의 빠르기를 사용하면서도 앞의 두 곡보다 외향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짧은 동기가
악기군 또는 피아노의 두 파트 사이를 오가며, 반복될 때마다 음역과 화음의 무게가 달라진다. 행진의 규칙적인 박과 민속 춤의 탄력이 한 곡 안에서 함께 움직인다.

IV. Allegro molto (D major)

마지막 곡은 네 곡 가운데 가장 빠른 종결부다. 세 부분으로 진행한 뒤 두 부분으로 나뉜 코다가 이어지면서 , 앞에서 제시한 리듬을 짧게 압축해 마무리한다 . D major의 밝은 조성과 빠른 반복은 첫 곡의 D minor와
대조를 이루며 모음 전체를 분명하게 닫는다.

관현악판과 연주

그리그는 Op. 35의 관현악판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 Robert Henriques는 1882년 무렵 일부 곡을
관현악으로 옮겼고, 1886년 코펜하겐의 Peer Gynt 공연에서는 1번부터 3번까지가 무대음악으로 사용되었다 . 이후 Hans Sitt가 네 곡 전체를 관현악판으로 정리해 1890년대 초 Peters에서 출판했으며 , 이 판본이 오늘날 가장 널리 연주되는 관현악 버전으로 자리 잡았다.

Sitt판에서는 피아노 한 대가 만들던 화음의 층을 현악의 넓은 울림, 목관의 짧은 응답, 금관과 타악기의 행진 리듬으로 나누어 들려준다. 그 결과 같은 곡이라도 네 손 피아노에서는 손가락 사이의 탄력과 화음 변화가 앞에 서고, 관현악에서는 선율이 악기군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이 더 선명해진다 .

주요 레코딩

Petri Sakari / Iceland Symphony Orchestra (1991년 녹음, 1992년 발매, Chandos
CHAN 9028): Hans Sitt 관현악판을 18분 05초에 담은 녹음이다. 네 곡의 트랙 시간은 6분 17초,
2분 28초, 3분 26초, 5분 45초로 제시된다.
Ole Kristian Ruud / Bergen Philharmonic Orchestra (2002–03년 녹음, BIS BISSACD1291): 노르웨이 악단이 Sitt판을 연주한 사례다. MusicWeb의 비평은 이 음반에서
관현악의 음색과 그리그의 다른 관현악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녹음 전통을 함께 언급한다. Neeme Järvi / Gothenburg Symphony Orchestra (1987년 DG 녹음): Norwegian Dances를 포함한 그리그 관현악 작품집에 수록된 연주다. 앨범 전체 시간은 68분으로 표시되며,
작품 단독 시간과는 구분해야 한다.

주요 자료

G. Henle Verlag, Norwegian Dances, Op. 35, HN 1282: 네 손 원판의 연대, 초판, 악장 표제와 조성, 관현악판의 전승.

Rytis Urniežius, “Grieg’s Norwegian Dances, Op. 35: Two Orchestrations”: Henriques와
Hans Sitt 관현악판의 연대와 편곡자 관계를 다룬 학술 논문.
Alfred/Kalmus, Norwegian Dances, Op. 35: Hans Sitt판의 현대 재판과 관현악 편성.

IMSLP, 4 Norwegian Dances, Op. 35: 네 손 원판, 악장 표기, 자필 ·초판과 Sitt판 악보 경로.

Chandos, Grieg: Norwegian Dances: Petri Sakari·Iceland Symphony Orchestra의 녹음
정보와 트랙 시간.

MusicWeb International, Grieg: Norwegian Dances: Ole Kristian Ruud·Bergen Philharmonic Orchestra 녹음의 비평.